

호남 36인 항일 투쟁기록 108년만에 '빛'

향토 사학자 정재상 소장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문서 공개 배준필 부자 등 곡성 20명 '최다'...지리산 일대에서 무장투쟁

남원 출신 이평국 의병장은 1907년 두 아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이평국 3부자(父子)는 남원에서 봉기한 후 항일투쟁을 펼쳤으나 여의치 않자 의병진을 지리산 자락이 있는 구례로 옮겼다. 같은 해 11월 곡성군 목사동면 현대마을 인근으로 의병진을 이동, 일제와 맞서 싸웠다. 이들은 고경명 장군의 후손으로 알려진 답암 출신의 고향순 의병장 등과 함께 활약했다.

이평국 3부자를 포함해 구한말 을사늑약(1905년) 이후 일본군에 맞서 싸운 호남 지역 항일투사 36명의 활약상과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건이 10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지리산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곡성 출신 항일투사 배준필 부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지리산권 우리문화연구소 정재상 소장(50)은 25일 "국가기록원에 소장중인 조선총독부 문서 '폭도에 관한 편책'에 담긴 전남경찰부장 보고서(1908년)와 전북 남원경찰부장 보고서(1907년) 등 3건의 보고서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호남 출신 항일 투사 36명에 관한 인적사항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도에 관한 편책'은 일제가 의병들의 토벌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모두 1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출신지 별로 주소, 성명, 나이와 활동한 지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출신 배준필 부자는 같은 마을 양보신(당시 45세)과 오지면 압록리 배재용(30), 석곡



이평국 의병장이 곡성군 죽곡면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있다는 당시 일본경찰의 보고서(1907년).

면 장거리 신용섭(20), 순천시 황전면 백낙선(40), 구례군 산동면 최명서(40) 등과 함께 지리산 일대에서 일제와 맞서 싸웠다.

이번에 밝혀진 항일투사는 곡성 출신 20명, 순천 4명, 구례 1명, 남원 11명이다. 문건에 기록된 36명의 항일투사는 충남 의병장 김동신, 순천 의병장 조서화, 곡성 의병장 노인선·신정우·이일성, 담양 고평

순·고광문 형제, 하동 박인환(박매지)·박인식 형제 등과 함께 1907년 초부터 지리산 일대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곡성·구례경찰서와 하동군청, 우편취급소 및 일본군 수비대 본거지 등을 습격해 일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상 소장은 "곡성지역은 조서화, 노인선 의병장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항일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라며 "이번 문건은 곡성 군민들이 항일투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민 정 소장은 1993년부터 영·호남지역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 신청을 통해 모두 130여명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기여했으며, 2014년에는 영·호남 출신 항일투사 28명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는 데 기여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7 해질 21:37
해짐 18:24 달짐 08:51

많은 비는 아니에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주	호리고/비/눈	-1/7
목포	포	호리고/한때비	0/7
여수	수	호리고/한때비	2/8
나주	주	호리고/한때비	-4/7
완주	완	호리고/한때비	-1/8
구례	례	호리고/비/눈	-4/7
강진	진	호리고/한때비	-3/8
해남	남	호리고/한때비	-5/7
장성	성	호리고/한때비	-5/7
보성	성	호리고/한때비	-5/7
순천	천	호리고/한때비	-1/9
영광	광	호리고/비/눈	-3/6
진도	도	호리고/한때비	-1/7
전주	주	호리고/비/눈	-2/4
군산	산	호리고/비/눈	-1/5
남원	원	호리고/비/눈	-4/4
축산도	도	호리고/한때비	4/8



비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안	남서~서	0.5~1.5	서~북서	1.0~2.0
남부	남서~서	1.5~2.0	남서~서	1.5~2.5
남부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남부	남서~서	0.5~1.5	남서~서	1.0~2.0
남부	남서~서	1.0~2.0	남서~서	1.5~2.5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돌매

목포	밀물	썰물
	04:12	09:26
	16:29	21:45
여수	11:10	04:56
	23:25	17:07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1(화)	2(수)	3(목)	4(금)
2/10	3/8	-2/7	-2/8	0/10	1/10	1/10



'미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재수사

15년만에 착수...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도

미제로 남아 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25일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사 등을 감안해 해당 살인사건을 원점에서부터 검토,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사건은 강력부가 맡는다.

구본선 차장검사는 "시간이 너무 길게 흘렀지만 유전자(DNA) 감식으로 특정된 유력한 용의자가 살인 또는 죽음에 관여했는지, 이전 수사에서 간과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15년 전인 2001년 2월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에서 여고생 A양(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으나 2012년 대검찰청 DNA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강도살인죄로 목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9·당시 24세)씨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뒤늦게 김씨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으나 DNA 이외의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씨마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나주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재수사, '비슷한 범행 수법', '다수의 외상', '용의자의 진술 번복과 통신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며 지난해 10월 검찰에 재송치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또 2009년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에 대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전담팀은 당시 주요 용의자는 이미 무죄가 확정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또 다른 용의자나 공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은 2009년 6월 14일 오전 10시 25분께 광양시 중마동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A(여·당시 43세)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발견돼 질식사처럼 보였지만 초여름임에도 승용차의 히터가 켜져 있었고 목에 희미한 자국이 있는 점을 토대로 경찰은 타살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마지막 문자를 보낸 A씨의 회사 사장 B씨를 긴급체포했으나 B씨가 "내연녀가 내 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내연녀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C씨는 A씨가 내연남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A씨를 불러내 손으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C씨는 법정에서 "문자는 보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역시 손이 아닌 얇은 줄로 목이 졸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교육청, 유치원 기간제 교원 차별"

전남지노위 "정교사와 업무 동일...수당 지급하라"

광주 유치원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광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기간제 유치원 교사 77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신청한 '차별 시정 신청 사건'과 관련,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고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정교사와 비교할 때 기간제 유치원 교사들의 경력 호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정근수당, 정근수

당 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게 전남지노위 판단이다.

전남지노위는 이같은 점을 내세워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3년치 기본급 6억 2435만원과 정근수당 4206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677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전남지노위는 앞서 지난해 10월에 두 유치원 기간제 교사 A씨가 낸 '차별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바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읍무 교직원 200명 조사

U대회 축구대표 선발 비리 수사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읍무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200여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분석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경찰의 읍무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남교육청 직원 200여명의 명단을 감사원에서 통보받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징계를 받거나 퇴직한 직원 이외 징계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 감사원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 이어 한국대학축구연맹도 대표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대학축구연맹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광주 U대회 대표 선발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축구연맹은 지난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주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